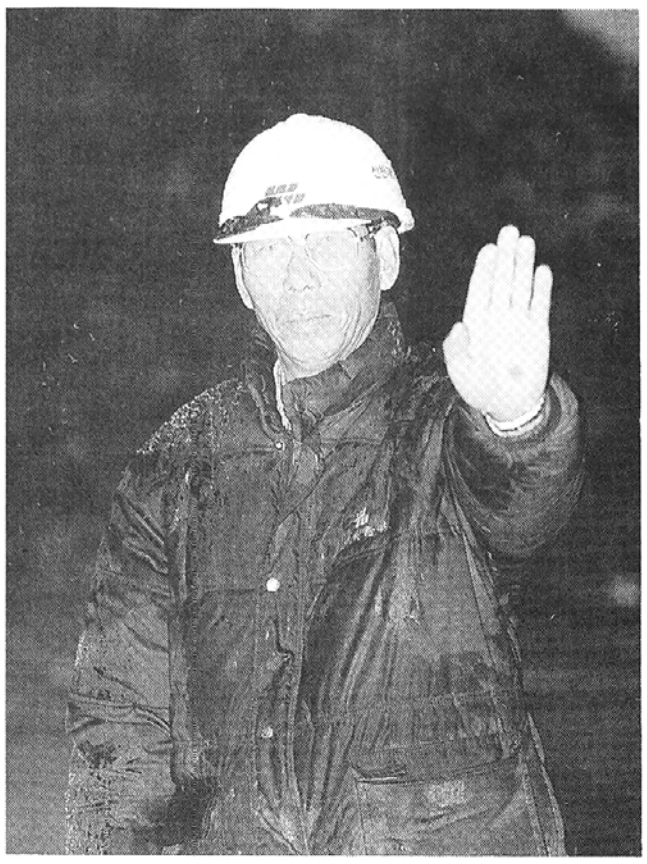
"온몸의 감각으로 타점찾기"

산문밖의 禪

건물해체 전문가 양승인 씨



'부처를 구한다면 부처를 잃을 것이요, 도를 구하면 도를 잃고 조사를 구한다면 조사를 잃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임제선사의 말로 선가에서 누누히 되새김질하는 공안이다.

부처와 조사라는 상(相)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면 부처와 조사라는 상(相)조차도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혹독한 자기수행의 가르침이다. 이것은 어쩌면 파괴와 재창조의 상관관계가 아닐까.

굵은 빗줄기가 허물어진 옛 조선총독부 건물의 잔재위에 지난날의 질곡을 씻어 내리기라도 하듯이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재촉하고 있는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구 조선총독부 건물 해체 총반장 양승인 씨(58).

지난 9월 조선총독부 맨 꼭대기 첨탑부터 건물해체를 시작한지 석달째인 11월 말. 마지막 남은 외벽. 한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타점을 찾아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위의 시선은 양반장에게 모아진다. 바로 그 '한 방'의 타점을 찾는 일은 양반장의 몫이다.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건축학을 전공한 석·박사들도 해낼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기계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의 '온몸으로 느껴지는 감각'에 의해서만 이 가능한 일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해체 건물의 무게중심을 파악하고 다음 번의 타점과 붕괴 직전의 조짐을 감지해 '치고 빠지는 타이밍'을 제대로 조정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언제 콘크리트가 머리 위로 쏟아질지, 언제 건물과 함께 추락할지 모르는 일이라 항상 긴장해야만 하죠."

누가 뭐래도 '부수는 일'에 관한 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전문가다. 현재상태를 과감히 파괴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가치창조를 추구해 온 그. 임제선사의 가르침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파괴하고 거기서 또다시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혹독한 수련의 여정을 밟아 왔으리라.

역사는 창조만으로 이뤄져 온 것은 아니다. 창조를 위한 파괴 역시 역사의 한 부분을 이루어 왔다. 파괴는 범죄처럼 여겨지곤 하지만 역사는 파괴로 인해 재창조의 위대함을 역설하고 입증해 왔다. '파괴=재창조'. 이것은 35년간 점철돼 온 양반장의 삶의 공식이다.

21세때 훌훌단신 서울에 상경한 양반장은 이촌동 달동네 성냥갑만한 집에서 살다 이웃집 아저씨를 따라 건물해체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단층가옥에서 굴뚝, 고층빌딩까지 제 소임을 다한 건물들을 해체하는 일만을 고집스레 해 왔다

"처음 해체해 본 것이 당시 광화문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2인1조로 20명이 한달가량 작업을 했습니다" 장비라고 해봐야 10kg짜리 대형망치와 정, 그리고 몸뚱아리가 전부였던 시절에 지금의 롯데호텔 자리에 있던 8층짜리 반도호텔까지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건물 해체를 해보았다고 회상하는 양반장. 그것은 일련의 고행이었으리라. 혹독한 수행을 거쳐야만 하는 납자와 고행이 해탈을 향해 있다면, 아무 말없이 손을 놀리며 자신을 해체 건물에 이입시켜야만 하는 일 또한 '파괴'의 관념을 벗어버린 '새로운 창조'를 향해있는 것이리라.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건물들을 해체했을까. '5천평짜리 조선무역공사, 70m짜리 전주 전매청 굴뚝 3개, 궁정동 안가, 그리고…' 커다랗고 길쭉한 얼굴을 간신히 가리고 있는 안경 너머로 그 수를 헤아리던 양반장의 눈동자는 이미 수없이 겪은 생사의 고비를 더듬고 있었다. 몇년전인지 서울 시민회관 해체작업을 벌이다 4층에서 떨어져 저승문턱에까지 갔다가 되돌아 온 것하며 지붕해체작업을 벌이다 떨어진 것하며.

그러나 정작 양반장이 가장 힘겹게 여겨 온 것은 공사때마다 바로 그 '한 방'의 타점이 어디인가를 찾아내는 일이었다. 밤이면 해체 건물을 머리에 떠올리고는 타점이 어디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날을 지샌 적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도 양반장은 자신의 일에 대해 100% 완벽하다고 장담하지 않는다.

"이제야 생사진리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건물의 윤회나 인간의 윤회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 길을 갈 겁니다." 이 직업이 천직이라는 양반장.

"한 방으로 건물을 허문 순간은 오히려 허탈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을 해냈다는 성취감과 만족감으로 즐거워집니다." 극도의 긴장감과 거기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동시에 즐기며 늘 새로이 자신의 삶을 창조한다는 양반장. 그는 이미 '파괴의 전문가'가 아닌 '삶의 창조자'였다.

10년을 넘게 해체반장만 해 온 그는 소속회사인 산천개발에서 소장직을 주겠다는데도 마다했다. 학력이 국졸이라는 열등의식 때문도 아니었다. 단지 현장에서 자랐기에 끝까지 현장에서 뼈를 묻고 싶은 마음에서다.

지금까지 부순 그 어떤 건물도 총독부 건물만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숴 본적이 없다고 한다. "내 손으로 이 일을 해냈다는 생각에 가슴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다시는 이같은 아픔을 후손에게 남겨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양반장은 벌써 새로이 복원된 경복궁에 서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일제 잔재인 총독부 건물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역사의 징검다리를 놓았다는 회상에 감격해 하고 있다. 그것은 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한명우 기자

"정곡치면 한 방에 건물 무너져요"
소장직 마다하고 현장작업 자원

"부수는 일 35년…이제야 생사윤회 어렴풋이 짐작"

총독부건물 무너뜨릴때 '가슴 후련'
"망치인생 힘들지만 후회없어요"

경계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문 ①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갈등의 원인을 찾아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방법은.

② 세속에 묻혀 온갖 욕구충족을 위해 헤매이게 되는데 마음자리를 올바로 다스리자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요?

③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 부처를 본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요? 연기·사성제·삼법인 사법인 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익명의 독자〉

답 첫째 질문과 둘째 질문이 같은 것이니 몰아서 말씀드립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게 다가오는 일체의 경계, 그러니까 안팎의 경계가 실은 다 과거에 내가 마음으로 지어 입력해 놓은 것입니다.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뜻으로 짓는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렇게 지은 것이 때에따라 솔솔 풀려나오면서 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남이 내게 언짢게 한 일을 왜 내가 지은 것이냐 하겠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너와 나는 둘이 아닙니다. 근본에 있어서는 우주법계와도 다 한통속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체의 경계는 나를 진화로 이끄는 공부재료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내탓인줄 모르니까 남을 탓하고 심지어는 무슨 팔자 운명까지도 한탄을 합니다.

아무튼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갈등이나 욕심 같은 것은 모두 다 전자에 내가 짓고 현실에서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탓이란 말입니다.

일체 경계가 내탓인줄 안다면 원인을 찾아내고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찬찬히 자신을 돌아보면 원인을 알 수 있겠지만 그 원인까지도 내속에서 나온 것이니 찾느라고 애쓸게 아니라 나온 자리에 그냥 놓고 가는게 바른 공부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독화살을 맞았는데 이 화살은 누가 만들었고 누가 쏘았고 어떤 독이 묻어있느냐를 따지다가 그만 죽고말테니 무엇보다도 먼저 쑥 잡아 빼야하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니 원인 따질 것 없이 다 내 속에서 나온 것, 다 내탓이니라 하고서는 '그래 거기서 나온 것이니 거기다 놓는다' 하고는 여여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녹음테이프에 새 것을 다시 녹음하는 것처럼 됩니다. 나오는대로, 좋은 경계가 다가오면 감사한 일이구나 하고 놓아버리고 나쁜 경계가 다가오면 마음으로 돌려서 잘되라하고 놓아버려야 합니다. 경계에 얽매여 붙들고 늘어지면 그 붙잡고 안타까와 하는 마음이 그대로 다시 짓는 마음이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락 놓고 지켜보는게 바르게 수행하는 길이고 자유를 맛보는 길입니다. 무조건 놓고 지켜보다보면 체험하는 때가 옵니다.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부처를 본다 한 것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체만유는 근본에 있어서는 공입니다. 그런데 무시이래로 한 생각 짓는 마음이 삼천대천세계 일체 만물만생을 형성시켰습니다. 말하자면 이 우주는 다 마음의 소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지고 보면 공이지요. 인연도리만이 있을 뿐 실체는 없다는 말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경계, 나를 포함한 일체의 형상세계가 실은 다만 인연의 소산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평등이요 공 아닙니까? 그래서 평등공법이다 이말입니다.

이런 도리를 투철히 안다면 그대로 제법의 실상을 아는게 되고 제법의 실상을 알면 그대로 부처자리이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흔히들 부처라고 하면 그만 대상을 생각하게 되는데 부처가 있다고 하면 부처는 없는게 됩니다. 그렇다고 부처가 없느냐하면 없다해도 맞지 않습니다.

〈금강경〉에 다 나오는 말씀이지요.

사성제는 아시다시피 고집멸도, 고의 원인과 고를 멸해 도에 이르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고란 무엇이겠습니까? 공한 것을 있다, 없다고 하니 고요 무상한 것을 늘 있다고 하니 고입니다. 모든 시작엔 끝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고는 자동적으로 따라붙게 됩니다. 그러나 다만 연기일뿐인줄 안다면 고는 이미 고가 아닙니다. 내가 '삶은 고가 아니다'라고 자주 말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체는 내탓이요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짓고 내가 받는데 무슨 고니, 고가 아니니 하겠습니까.

삼법인이라는 것은 제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이고 거기에 일체개고를 보태면 사법인인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일체는 인연소산이니 '나'라고 할 실체가 없고 인연으로 생긴 것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이고 이 공한 도리를 알면 그대로 열반적정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성제니 삼법인이니 하는 것을 말로 알아들으려해서는 안됩니다.

불교는 실천으로 터득하는 것이고 직접 체험을 통해 맛을 보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다면 수행일 수가 없고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못됩니다.

이론으로 따지려하지 말고 가르침 한가지라도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을 하려고 노력해야 부처님의 참다운 제자인 것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화엄학림 제3기 학인 모집 공고

실상사 화엄학림은 화엄경을 중심 경전으로 하여 강의 연구, 토론 위주로 공부하는 종단 교육법에 의거한 전문교육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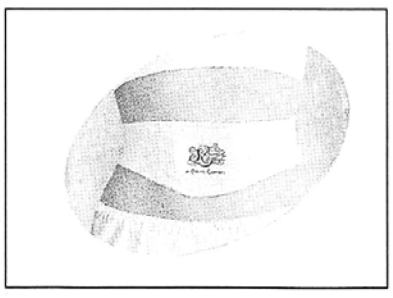
▶ 교 수 진 : 연관스님, 도형스님, 법성 스님, 일원 스님
▶ 교 과 목 : 화엄학 개론(일승집현문, 망진환원관, 의해백문, 화엄약책, 삼성원융관, 법계관문 등) 화엄현담, 화엄본경(80화엄), 화엄사상사, 특강
▶ 응시자격 : 비구로서,
1. 기본 교육기관 졸업자 및 예정자(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
2.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원서 교부 및 접수 : 1996년 12월 1일 ~ 1997년 2월 25일 (음력 10월 21일 ~1월 18일)
▶ 전형일정 : 1997년 3월 5일 (음력 1월 26일) 오후 1시 실상사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입 학 일 : 1997년 3월 23일 (음력 2월 15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기본교육기관 졸업증서 (예정) 1부
사진 5매(반명함판)
▶ 문 의 : 전화 0671)34-3860,3861(화엄학림)
0671)34-3031 (사무실)
0671)34-3757 (주지실)

※ 입학을 원하는 스님들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연관
590-850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번지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 · 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